

'스포츠 탈장 수술' 손흥민, 무리 없이 페루전 결장

등록 2023.06.16 22:02:25



[부산=뉴스시스] 김명년 기자 =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
한민국과 페루의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이 벤치에서 조끼를 입고 있다. 2023.06.16. kmn@newsis.com

[부산=뉴스시스] 박지혁 기자 = 클린스만호는 손흥민(토트넘)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았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6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 A매치 평가전에
서 0-1로 패했다.

지난 3월 콜롬비아(2-2), 우루과이(1-2)와 2연전에서 1무1패를 기록했던 클린스만호는 출범 첫 승 신고를 다음으로 미뤘다.

최근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소속팀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다. 12일 부산 첫 소집부터 훈
련에 참여했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모인 부산 팬들로 경기장은 뜨거웠다. 부산에서 A매치가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를 앞두고 전광판을 통해 선수 소개가 이뤄지자 관중석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부산=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 손흥민이 공을 페루선수에게 건네주고 있다. 2023.06.16. ks@newsis.com
베스트11에 이어 교체 명단을 소개할 때, 오히려 더 큰 함성이 터졌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사진이 전광판에 나오자 일제히 소리를 내질렀다. 이후 손흥민이 훈련복 차림으로 벤치에 자리하는 모습이 비춰지자 다시 한 번 큰 함성을 보냈다.

에이스 손흥민의 결장 속에서 한국은 끝내 페루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클린스만호 출범 이후 첫 무득점 경기다.

오현규(셀틱), 황희찬(울버햄튼), 조규성(전북), 이강인(마요르카) 등이 날카로운 슈팅과 크로스로 페루를 위협했지만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한 차례 더 대결한다. 회복할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선 손흥민의 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